

이주노동자 열악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촉구 집단 진정서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 발신: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비인간적 기숙사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 집단 진정 내용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 임시가건물 기숙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하라.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진정 사례 설명

2022년 10월 27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하였음. 그때부터 현재까지 혹은 그 전 사례에서도 상담, 제보 등을 통해 취합한 열악한 기숙사 주요 사례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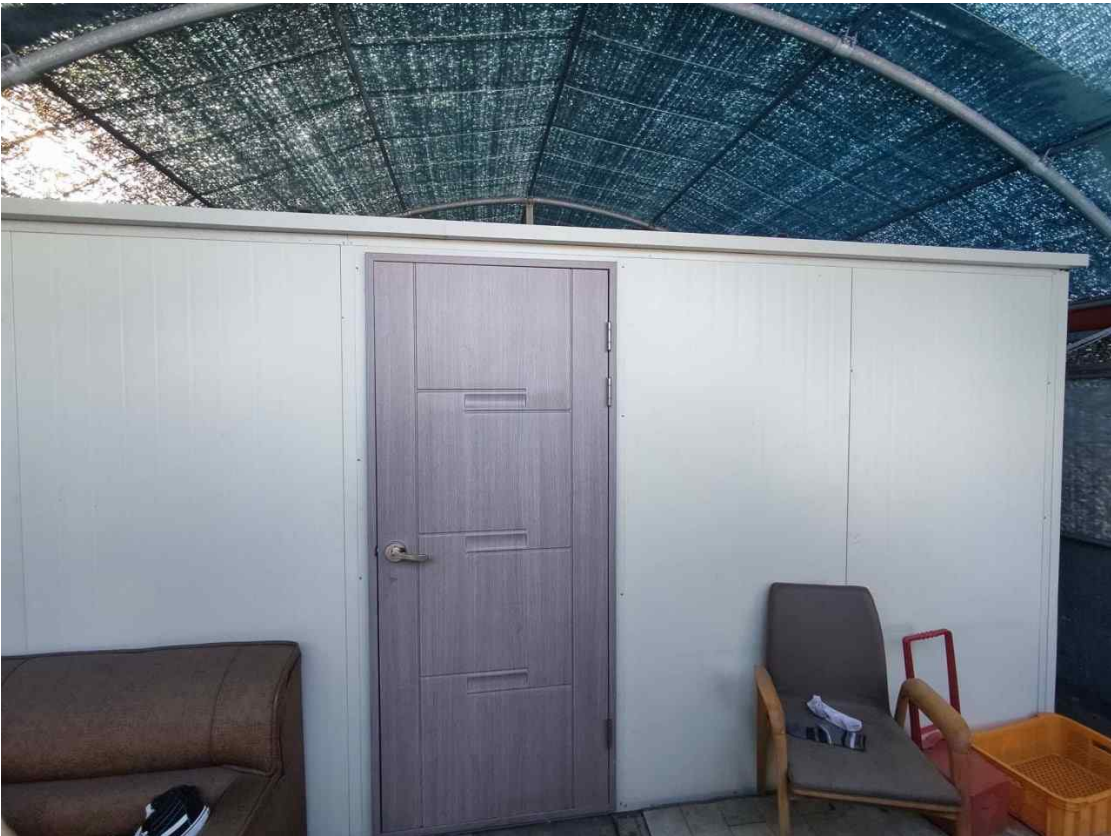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972



-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음. 식사제공 없이, 기숙사비로 임금 15% 공제

2) 제주도 서귀포시 흙담솔로 180





- 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 계약서에는 '사업장 건물'로 표시되어 있음. 숙식비 26만원 공제

3) 경남 산청군 시천면 친환경로 2-47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음.
- 식사제공 없이, 기숙사비로 18만 5천원 공제

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14번길 105



- 공장안 컨테이너 기숙사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숙사비로 15만원 공제

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21



- 길가에 인접한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
- 소음도 심각

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226번길 44



- 컨테이너를 늘어놓은 기숙사

7)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256-5



- 비닐하우스 내 임시가건물 기숙사

8)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494



-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기숙사

- 계약서 상으로는 '주택'으로 표시, 숙식비 50만원 받았음.

9) 김포시 월곶면 비석동로 110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 기숙사
- 식사제공 없이, 기숙사비로만 25만원 공제함.

10) 부산시 사하구 녹산산단262로 13번길 40



- 생산공장 안 컨테이너 기숙사
- 계약서에는 '사업장 건물'로 표시되어 있음.
- 일을 못해 기숙사에만 머무르자 하루 6만원씩 공제. 사업장 변경 대가로 68만원 요구함.

11)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신동길 41



- 컨테이너 기숙사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식사제공 없이 기숙사비로 25만원 공제함.

12)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 55



-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 기숙사

13) 경남 창원군 길곡면 낙동로 1614-25



- 샌드위치 패널 기숙사
- 화장실은 야외 플라스틱 간이 화장실.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음.

14)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77-31



-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아 놓은 기숙사. 소음, 분진이 심하고 환경이 열악함.
- 놀랍게도, 지자체에 숙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변경이 불가

1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32



- 공장 부지 내 컨테이너 기숙사
- 계약서에 '컨테이너'로 표시되어 있고, 식사제공 없이 기숙사비 20만원 공제

16)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76



- 컨테이너 2단으로 쌓은 기숙사
-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숙식비로 36만 4천4백원 공제

17)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158-17 비닐하우스



- 문이 없고 커튼만 있는 여성노동자 샤워실, 야외 간이 화장실

18)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33-8 비닐하우스



- 비오면 침수되는 비닐하우스 안 숙소
- 냉난방 장치 없음. 화장실은 야외

19)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로 1101-38 비닐하우스



- 비오면 침수되는 비닐하우스 숙소, 입사 2일만에 공제동의서 (번역문안 없이 서명받은 다음 나중에 숫자를 임의로 써넣음), 수개월 후에도, 1일 40소쿠리 수확해야한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써서 서명강요

20) 경기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380-1



- 남녀 노동자 7명 거주, 1인당 1개월 숙소비 35만 ~45만원, 공제동의서 있는 노동자 및 없는 노동자 공히 공제

21)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315-2



파괴보상 청구서

1. 동업중앙회 364.000원 (1인당)
2. 숙소.실내대빛가스설치와 130.000원
3. 격리비용 300.000 (1인당)
4. 와이파이설치비용 260.000
5. 숙소 전기 시설 비용 800.000
6. 10개월 수도요금 1.000.000
7. 하우스 2동 피해보상 10.000.000원

1번: 360.000원	1번: 360.000원
2번: 315.000	2번: 315.000
3번: 300.000	3번: 300.000
4번: 130.000	4번: 130.000
5번: 400.000	5번: 400.000
6번: 50.000	6번: 50.000
7번: 5.000.000	7번: 5.000.000
합계: 6.555.000원 합계: 6.555.000원 육백오십오만오천원 육백오십오만오천원	

- 여성노동자 2명, 근로계약서상의 주소와 완전히 다른 곳에 거주하게하면서 인접한 허공에 컨테이너 1채의 숙소를 놓고 근무하게 함.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난방이 안되는 것, 화장실이 없는 것 등 불편함을 호소하자, 1인당 650만원을 지불하면 고용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협박함. 노동자들은 마지막 임금 약 15일치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장 변경함.

22) 충남 논산시 노성면 벼슬로 49 (허위신고지) 실제 논산시 노성면 교촌1길 23



- 주택대장이 없는 폐가 : 실제제공 1인당, 40만원. 폐가를 이용한 숙소비 착취, 방충/단열/난방 취약

23) 전북 익산시 용안로 46



- 70대 고용주가 자신의 농막 앞에 이어 붙은 컨테이너에 여성노동자들을 머물게 하였음. 이 컨테이너 숙소엔 화장실이 없음. 고용주가 쓰는 야외화장실은 있으나, 여성노동자가 이를 이용하기는 너무 불편함. 이것을 호소하자, 고용주가 이탈신고를 함. 임의로 숙소비를 25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노동부가 정한 '숙식비 징수지침'마저 넘겨서 위반한 것이기도 함.

24)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918-6



- 여성노동자 2명을 고용한 고용주가 본래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주소지의 컨테이너 숙소엔 묵게하고, 그 컨테이너에 잇대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욕실에 구멍을 내 두었다가, 목욕하던 노동자들을 훔쳐 봄. 사장이 훔쳐보다가 인근 동료노동자에게 발각됨. 숙소 사용료는 월 15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은 매일 1.5 시간 이상의 노동을 무상으로 시키고 그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해오던 터였음.

25) 경남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092-18



- 컨테이너 기숙사. 여러 곳에 불법파견을 시킴.

26)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646-4



- 농수로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기숙사